

#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공모 방식 개선

### 공모분야별 예산 확정 후 공모하는 방식으로 변경

### 전북교육청, 운영관리계획 공고 통해 상세 안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공모 방식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2025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예산계상 신청을 받는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보조사업자를 미리 선정하지 않고 공모분야별 예산을 확정된 후, 지방보조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 이는 총괄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운영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의 예산계상 신청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을 검토한 뒤 전북교육청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사업을 추려 공모분야별 예산 규모를 산정해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민원·참여-민간보조사업-예산계상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후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요청한 사

업을 심의·의결하고, 공모분야별 예산 규모를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누리집을 통해 '2025년도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계획'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지방보조사업 운용 방식 개선을 통해 지방보조사업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고 적정하게 편성해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ESG가 중요한 올 한해 주목해야할 트렌드 소개

### 우석대 지용승 교수 'ESG 시대가 온다' 출간

우석대학교 지용승(교양대학) 교수가 ESG 시대가 온다를 출간했다.



ESG의 시대가 온다 책 표지

이에 따르면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지용승 교수는 이 책에서 21세기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부작용, 물질만능주의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더불어,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의 당위성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직 경영의 필수 지침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적 제언과 성장 전략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지용승 교수는 올해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 ESG가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주목해야 할 5가지 트렌드를 제시했다.

첫째는 주요 나라들의 기후 공개 원칙은 ESG 보고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고와 공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막는 ESG 공시 강화. 세 번째는 기후 관련 재무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무 부문과 지속 가능성의 긴밀한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 네 번째는 제품의 탄소발자국과 수명



지용승 교수

주기에 대해 소비자들은 더 나은 투명성을 요구할 것. 마지막으로 2024년 이후 지속 가능성 보고는 민간 및 공공의 영역을 넘어 모든 산업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지용승 교수는 "ESG는 민간과 공공조직의 지속 가능성, 윤리, 투명성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 전략이다"라며 "전통적인 경제적 성과 외에도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윤리적 경영 등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ESG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창훈 이사장은 지용승 교수의 책에 대해 "인간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지구 온난화로 이어져 인간의 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ESG 경영을 시작해야 한다"고 평했다. /장은성 기자



●이탈리아에 위치한 시에나외국인대학을 방문한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일행이 대학 관계자들과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한 뒤 맞손을 잡고 있다. ●볼로냐대학을 방문한 양오봉 총장 일행이 볼로냐대학 관계자들과 학문 분야와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우수 유학생 유치 위해 이탈리아·그리스행

### 전북대, 2개국 7개 대학 찾아 국제협정 강화

### 인터내셔널 강의·한국 문화체험 참여 요청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난 7~19일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주요 대학 및 기관들을 잇달아 방문했다.

특히 전북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 대학 교수가 전북대에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는 '가칭'전북대 인터내셔널 강의'를 소개하고, 이탈리아와 그리스 대학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양 총장은 총 7곳의 대학을 방문해 4개 대학과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나머지 대학들과도 추후 공식 협정 체결을 약속했다.

양오봉 총장과 이동현 교무처장, 박성용 국제부처장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이탈리아 시에나외국인대학(University for Foreigners of Siena)과 카포스카리베네치아대학(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피렌체대학(University of Florence) 등을 찾아 이 대학 총장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먼저, 시에나외국인대학과 카포스카리베네치아대학은 한국어학과가

설치돼 한국어학과를 중심으로 교환 학생과 전북대의 단기문화체험 참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피렌체대학과는 MOU를 통해 생물학과 교육, 문화, 심리 등의 분야에서 학생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볼로냐대학에서는 건축학과, 현대 언어학과, 정치사회학과, 삶의 질 연구학과, 예술학과, 통역 및 번역학과 등 다양한 학과 교수들이 참여해 각 학과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북대의 관련 학문 분야와 연구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탈리아 방문에서 양 총장은 리카

르도 젤리 피렌체한국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만나 전주국제영화제 등 영화제를 통한 산학협력 추진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어 그리스로 건너간 방문단은 아테네 국립공과대학과 아테네 국립카포디스트리아스대학(National and Kapodistrian University of Athens), 테살로니키 아리스토텔레스대학(Aristotle University of Thessaloniki) 등 3개 대학을 잇달아 찾았다.

이 중 아테네 국립공과대학과는 유람-한국 공동 펀딩 프로젝트에 참여해 시나 수소 분야에서 공대 대학원생과 연구원 교류를 통한 공동 연구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테네 국립카포디스트리아스대학과는 학과 단위의 협력을 기반으로 대학 간 MOU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스의 대학 가운데 전북대와 유일하게 2018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테살로니키 아리스토텔레스대학에서는 유럽의 에라스무스 장학 프로그램(Erasmus+)을 통해 학생과 교수의 교류 추진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문학과 식품공학, 건축학, 삼림학 등에서 공동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오봉 총장은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열흘 남짓 짧은 일정에도 최대한의 국제협력 성과를 내기 위해 되도록 많은 대학을 찾았는데, 좋은 성과들이 도출될 것 같다"며 "우리 학생과 연구자들이 해외 무대에서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확장하고, 전북대만이 갖고 있는 우수한 연구 분야를 바탕으로 유학생 5천 명 유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학교구성원 회복조정지원단 시범 운영

### 총 25명으로 구성... 학교구성원 간 분쟁·교권침해 사안 발생했을 때 갈등 조정

### 전북자치도교육청 '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복 돕기 위한 책임감도 중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구성원 회복조정지원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 18명, 회복조정 전문가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회복조정지원단은 교원과 학생, 교원과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간 분쟁이나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갈등

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이끌어낸다.

이를 통해 교원과 학생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에게는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지원한다.

회복조정은 양측의 분쟁조정 동의하에 개시된다.

조정이 개시되면 △해당 학교에 사전 방문해 객관적으로 사안을 파악 △분쟁 당사자를 따로 만나는 예비조정 △양측 당사자가 함께 만나는 본조정 △회복조정 과정을 보고하고 학교 지원과 협력 요청 등 4단계로 진행된다.

## 차세대 몰입형 입체음향 기술 도입... 콘텐츠 제작에 새로운 차원 열다

### 전주대, 돌비 프로페셔널 애트모스 뮤직 스튜디오 등재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은 돌비 래버러토리스에서 제공하는 프로페셔널 애트모스 뮤직 스튜디오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대학교 애트모스 사운드 스튜디오에서는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활용, 깊이 있는 사운드로 음악의 모든 디테일 표현이 가능해졌다. 또한 360도 공간에서의 정밀한 사운드 배치 및 구현이 가능하기에 이전에 없던 몰입형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일 전주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40개국 1,000여 곳의 스튜디오에서 돌비 애트모스 음원을 생산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전주대와 서경대 등 교육 시설과 대형 음반 기획사를 포함해 총 22곳의 스튜디오에서 돌비 애트모스 음원을 제작한다.

특히 이번에 등재한 전주대학교의 'JJ Atmos Sound Studio'는 지역에서 등재된 첫 번째 스튜디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학과경배찬양학과 김장순 교수는 "돌비 애트모스 스튜디오 구축을 통해 이제는 돌비 애트모스 음반 작업을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돼 전북 지역의

콘텐츠 제작 사업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다"며 "대학의 마이크로 전공과 연계해 콘텐츠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차세대 몰입형 콘텐츠 기술 제작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영상,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콘텐츠 기업과 연계해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 바이오헬스 산업 실증기반 구축

### 전북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협약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손정민)은 20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 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협약식은 전북대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에서 손정민 단장과 유재열 부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향후 공동 연구와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실증 기반 공동 구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손정민 단장은 "이번 협약은 바이오헬스 및 의료기기 산업 기술 발전은 물론, 연구 및 기술 개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과학적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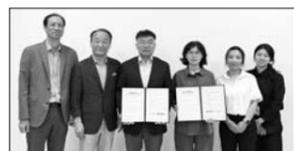
### 전북대 생물환경화학학과, 인체항노화표준연구원과 '맞손'

전북대학교 생물환경화학학과와 인체항노화표준연구원이 치유농업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과학적 검증을 목표로 추진했다. 2020년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치유농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대중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치유농업 분야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북대는 다양한 농작업 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첨단 인프라를 구축,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치유농업과 관련된 최신 기술을 학습하고 새로운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인체항노화표준연구원은 비침습적 신경계 측정 기술과 신경생리학적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산림치유, 브레인토크 치유, 화해 치유, 치유 명상, 음악치유, 미술 치유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증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